

유적지 순례 100

정헌공(正獻公)상유(尙游)와 정간공(靖簡公) 혁(焮)



△정헌공 상유 신도비각(충남금성면 두곡리 재사내)



△정헌공 묘비: 충남 금성면 두곡리



△정헌공신도비와 묘비



△정헌공 상유 신도비명(증시 정헌공)



△숙묘소

정헌공(正獻公)상유(尙游)

공은 화천군(花川君)의 7세손으로 잘방공 주(雋)의 증손이며 육우당 격(格)의 셋째아들이다. 호는 구계(龜溪) 또는 만포(晩圃)이다. 효종 7년 출생하여 수암(遂菴)선생을 스승으로 수학한 후 송시열의 문인이 되었다.

숙종 20년 알성시(講學試) 문과 병과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으며 삼사(三司)의 여러 벼슬을 거쳐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공이 응교(應教:정4품)로 있을 때 실학자 박세당이 사변록(思辨錄)을 지어 주자학을 비판하니 왕명으로 그 책을 불태울 때 공은 조리있게 논박하는 변설문(辨說文)을 작성하여 공의 학설이 떨치게 되었다.

공은 개성유수, 전주부윤,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냈는데 세 곳에서 선정을 베풀어 유애비(遺愛碑)가 있고 수원부사로 있을 때 관원들의 비행을 적발하여 이도(吏道)를 크게 쇠신시켰다.

공은 청나라의 연경(燕京)에 다녀와 주자를 공문(孔門:공자의 문하생)의 심철(十哲)과 함께 문묘에 배향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은 숙종 32년 대사간이 되고 이,예,공조참의를 거쳐 전라도, 평안도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호조판서(戶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와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내고 우참찬이 되었다. 이조판서(吏曹判書) 보임 시 숨은 인재가 많이 등용하였으나 경종 1년 신임사화(辛壬士禍)가 일어나 노론이라 하여 삭탈 관직되었다.

경종 4년 졸하니 수 69세였다. 유고로 문집을 남기고 정헌공(正獻)의 시호를 받았다. 묘소는 충남 금성면 두곡리 선영 아들 숙 묘소 아래에 있다. 신도비문은 영의정 이의현(李宜顯)이 짓고 문원공 민우수(閔遇洙)가 쓰고 전서는 영의정 유척기(兪拓基)가 썼다. 후사는 증 사복시정 숙(燾), 이조판서를 지낸 정간공 혁(焮), 증 참의 위(煒), 첨지중추 영(煥), 별제 흰(煊), 잘방후(休)와 3녀를 두었다.

정간공(靖簡公) 혁(焮)

정헌공 상유(尙游)의 둘째 아들이다. 숙종 20년 출생하여 호는 운양(雲陽)이고 숙종 45년 사마시 진사시 장원하고 생원시 1등하여 세자익위사 세마(洗馬)로 발탁되었으며 영조 2년 33세에 알성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에 들어갔는데 정미환국으로 소론(少論)이 등장할 때 실록청(實錄廳) 낭관(郞官)으로 숙종실록의 보결정오편(補闕正誤篇)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이 일자 공은 여주에서 올라와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는데 대신들이 한성을 버리고 피난가자고 주장하였는데 공은 적극 반대하여 난을 진압하고 민심을 안정시

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난이 평정되자 공은 벼슬을 버리고 다시 청풍의 황강으로 가 학문에 열중하였는데 왕이 수차 불러도 응하지 않았다. 영조 5년 부수찬으로 나아가 상소를 올린 것이 당론에 치우쳤다 하여 삭탈되었는데 곧 홍문관 교리에 등용되어 영조 8년 당론을 논하다가 해남으로 유배되었다. 영조 10년 41세에 서용되어 영조 17년 48세로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영조 20년 경상도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이조참의, 강화유수로 나갔다가 영조 24년 평안도 관찰사(觀察使)로 있으면서 함흥여사의 탄핵을 받는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의 천거로 대사헌(大司憲)이 되니 공의 관직에 있어 과란만장함은 당파싸움에 기인된 것이었다. 영조 28년 부제학, 세자시강원우빈객으로, 함경도 관찰사를 지내다 영조 34년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올랐다.

영조 22년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청도의 정자동 일대에서 2세조 낭중공(郞中公)묘소를 수습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공은 누차 관직에 있어 청렴결백한 일생으로 청백리(清白吏)에 녹선(錄選)되었고 공이 유배되었던 해남에는 유애비(遺愛碑)가 있으니 유배지에서도 공의 자애(慈愛)와 풍절(風節)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공은 영조 35년 졸하니 수 66세였으며 정간(靖簡)의 시호가 내려졌다. 묘소는 금성면 두곡리 선영 선고 계하에 있다. 후사는 창녕현감을 지낸 호성(浩性)과 4녀가 있다.

30세 단외공(端窩公) 비응(丕應)

공은 정헌공(正獻公)상유(尙游)의 증손이고 위(煒)의 손이며 약성(若性)의 제3자이다. 영조 30년 출생하여 정조 2년 사마시로 진사가 되고 순조 6년 53세로 별시문과급제하였다. 공은 학식과 문장에 뛰어나 청환직(淸宦職)으로 옥당(玉堂)에 선임되어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이조참판을 지냈다. 순조 31년 졸하니 유고로 문집을 남겼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남방리에 있고 후사가 없어 백시 대응의 3자 문과실서(文科設書) 중화(中和)를 계자로 입후하였다.

34세 농춘공(農春公) 응선(應善)

정헌공(正獻公)상유(尙游)의 7세손이고 조부는 이조참의 택인(擇仁)이며 선고는 증 이조참판 금산군수 응직이다. 공은 현종 1년 출생하여 사마시하여 상군관의 태학생으로 있다가 고종 1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고종 35년 졸하니 수 75세이고 묘소는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신전에 있다. 아들은 참봉 한(翰), 비서승 윤(倫), 주사 필(泌), 시종관 항(尙) 진사 연(淵)을 두었다.

22세(世) 상(鎔), 진위공 대훈(大勳), 병사공 정길(井吉)

22세(世) 상(鎔), 용(鎔)

상(鎔)의 생몰 연대는 알 수 없으며 조고는 화천군 감(臧)이고 부는 만형(曼衡)이다. 자는 중진(仲珍)이다. 중종 17년 생원 3등으로 합격하고 진사 등 양장에 합격하였다. 배위는 대사헌 성몽정의 딸이고 묘소는 시흥시 하중동 직곡의 남쪽 선고 휘만형의 묘 우쪽에 있다.

청송공(靑松公) 용(鎔)은 만형(曼衡)의 셋째 아들로 생몰 연대는 미상이며 관직은 청송부사에 이르렀으며 사후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시흥시 하중동 형의 묘소 좌측에 있다.

23세 진위공(振威公) 대훈(大勳)

만형(曼衡)의 손자이고 용(鎔)의 장자이다. 생몰연대는 미상이고 관직은 진위현령을 지냈는데 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시흥시 하중동 선고 용(鎔)의 계하에 있다. 후사는

여산부사 곤(鰓), 부사과 홍(鴻)과 3녀가 있다.

25세(世) 정길(井吉)

진위현령 대훈(大勳)의 손자이고 이조판서 홍(鴻)의 여섯 아들 중 넷째 아들로 선조 20년 출생하였다.

광해군 10년 무과(武科)에 올라 특출한 자질로 19개 고을에서 원으로 역전하였으며 인조 14년 병자호란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제수되어 사직을 지켰다 하여 19개 진을 관할하는 부신(符信)으로 특사하니 전에 없었던 은전이였다. 보사원종 1등 공신에 녹훈되고 이로 인해 선고 홍(鴻)은 부사과에서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현종 7년 졸하니 71세였다. 묘소는 수원시 쌍구 흥전동에 있다. 아들이 없어 형길(亨吉)의 둘째 아들 혁(焮)을 계자로 하였다.

(자료제공: 시중공파회장 노림 권중덕 / 편술: 현봉 권경석)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⑥

■ 김 영 현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천일이 쇠약해진 그의 건강을 염려하며 의병 출동을 만류한 편지를 보면 “전장에 참여한 것도 국가를 위한 것이요. 고향에 남아 지방을 방위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에서 근분이 한번 흔들리면 국사는 장차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병의 승패는 오로지 선생이 뜻을 결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라고 했다.

이로 보아 당시 그는 67세의 적지 않은 나이

에다 병을 얻어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감전일은 지방(후방)의 방위와 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는 또 6월 말경 조카인 전남 장성 출신 정운룡(鄭雲龍), 1542-1593과 함께 이 고장에서는 처음으로 ‘이광의 실정(失政)과 호남의 실상을 소상히 기록한 상소를 써 광주출신 박희수(朴希壽)를 보내 의주행재소임금이 임시로 거쳐하는 곳과 소식이 통하게 했다. <회재잡>

이에 따라 7월 19일, 조정에서는 박광옥을 승문원 판교에, 정운룡을 장원서 장원(掌苑署掌苑)에, 박희수를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에 제수했다.

이후 9월 17일, 박광옥을 권율에 이어 나주목사로 임명하여 근왕활동의 지원과 호남방어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선조실록>(7.19)

박광옥은 1526년(중종21) 1월 26일 광주 서구 매월동 회산마을(당시, 광주 선도면 개산리)에서 태어났다 10살 때 조광조의 문인인 정황에게 글을 배웠다.

1546년 생원진사에 오르고, 1569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내시교관(內侍敎官)이 된 뒤, 1574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운봉현감을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의 주요 요직을 거친다.

운봉현감 재직 때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를 세우기도 했다.

이후 전라·충청 도사 예조정랑(1579)·사헌부지평(1580)·영광군수(1581)·말양보부사(1585)·광주교수(1586)·전주교수(1588)를 역임했다. 1589년중양의 성균관 사예(司藝)·사십시정(司臚時正)이 되었고, 병상시정(奉常寺正)으로 옮겼으나 병 때문에 사양하고 광주로 돌아왔다.

1590년 이후 그는 광주에 줄곧 머물면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맞은 것이다.

그는 내시교관, 광주·전주 교수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가례(家禮)와 유학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봉현감 재직 때 1380년 이상계가 왜구와 싸워 크게 승전한 지리산 부근 황산에 황산대

첩비를 세운 것을 볼 때, 임란 당시 인간성을 상실한 왜적에 대한 질서와 충의 정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벼슬에 오른 박광옥(44세 때)과 권율(46세 때)은 누구보다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다. 박광옥은 권율보다도 어느 면에서나 선배였다.

나이도 11살 위였고, 문과급제도 8년 빨랐으며, 전라도 도사 직도 9년이 앞섰다. 그러기에 권율은 광주목사라는 직책을 떠나 그를 극진히 예우함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왜적의 침략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념이 서로 같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대사헌 응선시명



△상의 묘: 시흥시 하중동 직곡 남 아파트 뒤산



△용의 묘: 상의 묘 좌측



△대훈의 묘: 하중동 선고 용(鎔)의 계하



△하중동 묘역



△비응 초상